

# 총선 8개월 앞... '게임의 룰' 언제 정하나

### 여 "오픈프라이머리" 야 "권역별비례대표제" 놓고 맞서 선거구 획정작업 시한 10월 13일내 타결 쉽지 않을 전망 주초 여야 의총서 선거·공천제도 등 각당 입장 정리 주목

20대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 관련 제도 도입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선거구 획정은 물론 '게임의 룰'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현역 국회의원들은 물론 내년 총선 도전을 염두에 둔 출마 예정자들도 공천 및 선거 전략을 세우지 못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일단 내년 4월 총선에서 현행 소선거구

제의 큰 골격은 유지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정치권에서는 지역주의 청산을 위해 중대선거구제나 복합선거구제(도시의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 적용) 도입이라는 변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큰 호응을 받지 못했고, 물리적 시간도 부족해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선거제도는 손대지 않은 채

낙산 공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공천혁명을 초점을 맞춰 국민공천제라고 명명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당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은 지역주의 해소를 명분으로 현행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여야 간의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지난 5일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의 '빅딜'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며 비껴가면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돼도 여당엔 실익이 적다고 판단, 정개특

위에 공을 넘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에서는 정개특위에 협상을 맡길 경우 합의의 도출이 어렵다는 점에서 여야 대표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 결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개월 활동시한으로 출범한 국회 정개특위도 여야 간의 견해차로 허송세월만하다가 이달 말 활동종료 시한을 눈앞에 두게 됐다. 정개특위도 그동안 밀린 선거제도 관련 협상을 위해서는 활동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활동 기한을 연장할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로 예정된 선거구 획정기초 마련 시한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든 전망이 우세하다.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이 늦어질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기구로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도 선거법에서 규정한 시한인 오는 10월13일(선거 6개월 이전)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초에 새누리당(11일)과 새정치연합(10일)이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 및 공천 제도를 둘러싼 각당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어서 팍 막힌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각 당이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 새로운 협상의 전기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 및 공천제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장기화되고, 정부·여당이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노동개혁이나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와 연계될 경우 여야 간의 절충점이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9일 오전 광주 학생독립운동기념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왼쪽 다섯번째)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조원진(오른쪽 네번째)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과 윤장현(오른쪽 세번째) 광주시장 등이 8·15자선거 국토순례단이 출정식을 마치고 출발하기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10여명 광복 70주년 맞아

## 광주서 '8·15자선거 국토순례' 스타트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광복 70주년 8·15자선거 국토순례단이 9일 광주를 출발, 5박 6일간 540km 대장정에 나섰다. 이날 오전 광주 학생독립운동기념관에서 열린 출정식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의원 10여명과 윤장현 광주시장이 참석했다. 이 원내대표와 조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단 10명, 시민 40여명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전국 독립운동 성지를 방문, 항일독립운동 역사를 재조명하고 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며 국토를

중단한다. 이번 국토 순례는 여야 정치인들이 시민과 함께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순례단은 '광복에서 통일로! 자전거 국토순례'는 주제로 광주 학생독립운동기념관,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예산 윤봉길 의사 유적지, 부천 안중근 공원, 김포 독립운동기념관 등 전국의 독립운동 성지 등을 거쳐 오는 14일 오후 2시 경기도 파주 임진각 망향단 해단한다. 참석자들은 9일 정읍 황도현 수련원, 13일 인천 청소년수련원에서 각각 토론회를

### 개최해 항일운동과 광복 70주년의 의미, 한일관계의 과거·현재·미래를 되새기는 시간도 갖는다

지난해 도보순례에 이어 올해 자전거 순례에 참석한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 이종걸 원내대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독립투사의 숭고한 열을 되새기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한일관계 문제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토순례 대장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광복 70주년의 근대사에서 우리가 무지해서 부족해서 당했던 아픔이다"며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를 뛰어넘어 광복 70주년 이후에는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해 통일·평화·선진화를 물려주기 위해 고민하는 대장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송영길·임종석·김민석 등 86그룹 정치인들

## 20대 총선 겨냥 재기의 '물밑행보'

송영길 전 인천시장,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민석 전 의원 등 '86인사(80년대 학번, 60년대 생 운동권 출신 그룹)'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기를 위한 물밑 행보에 나서고 있다.



송영길 임종석 김민석

새정치연합 내 86그룹은 1990년대 말부터 정치권에 진출했지만 원내 대안세력이 되기보다는 유력 정치인의 뒤에서 '기생정치'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최근에는 불출마 또는 당세가 취약한 지역에 도전하려는 압력을 받고 있어 이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인천시장 재선에 실패한 송 전 시장은 1년간 중국과 대만에서 연구교수 생활을 마치고 지난달 1일 귀국한 뒤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과 28일 인천지역 당원, 자신의 팬클럽을 대상으로 강연한 데 이어 이달 1일에는 목포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모 행사에 참여했다. 송 전 시장의 경우 인천 연구수에서 분구가 유력한 송도나 재판 중인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의 지역구인 계양구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임 정무부시장은 "부시장 역할에 충실할 때"라며 말을 아끼지만 내년 총선

을 통해 재기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2012년 한명숙 대표 체제의 사무총장을 맡아 총선 공천 실무를 진두지휘했지만 저축은행 사태와 맞물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고 당내 공천 잡음이 커지면서 사무총장직과 후보직을 사퇴했다. 주변에서는 새누리당 이재오, 정두언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 서대문을 출마할 가능성이 나온다. 김민석 전 의원은 오는 19일 피선자권 회복을 계기로 여의도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의원은 2002년 지방선거 때 38세의 젊은 나이에 집권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될 정도로 주목받았지만 같은 해 대선에서 정몽준 의원의 국민통합21로 이적, '철새'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뒤 אין 생활을 계속해왔다. 그는 2008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되며 재기의 길을 걷다 싶었지만 2010년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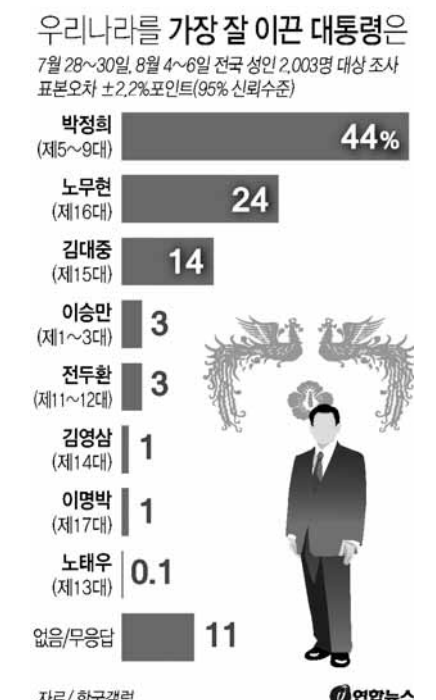
## 나라 잘 이끈 대통령 박정희 1위·노무현 2위

### 갤럽, 광복 70주년 여론조사

### 김대중 대통령은 3위에 올라

우리나라를 가장 잘 이끈 대통령으로 가장 많은 국민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광복 70주년을 맞아 7월 28~30일·8월 4~6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성인남녀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직 대통령 중 해방 이후 우리나라를 가장 잘 이끈 대통령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4%가 박 전 대통령을 꼽았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24%)과 김대중 전 대통령(14%)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이승만(3%), 전두환(3%), 김영삼(1%), 이명박(1%), 노태우(0.1%)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모두 한자릿수에 머물렀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62%)·60대(71%)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2030세대



우리나라를 가장 잘 이끈 대통령은 7월 28~30일, 8월 4~6일 전국 성인 2,003명 대상 조사. 표본오차 ±2.2%(포인트)(95% 신뢰수준) /연합뉴스

### APT 담보대출

상가·주택 담보대출 + 감정가대비 70%

###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 자산및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 자동차세 3천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천 이상 2장)
-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 장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 장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초회 공제로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계좌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과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쟁입회 후 추첨 예정)

경품안내

-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 3등 - 아이패드(3명)
- \* 4등 - 족욕기(10명)
-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미지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